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④

화정 스님 울산대학병원 영적돌봄가

힘든 순간조차도 좋다… "호스피스는 내 운명"



화정 스님의 은사 스님은 연세가 많으셨다. 은사 스님을 바라보며 항상 걱정이 많았던 화정 스님은 자연스럽게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런 영향으로 출가와 동시에 호스피스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스님은 "호스피스 일을 하며 매 순간 좋다"고 웃었다.

"호스피스 교육은 2001년부터 받았습니다. 은사 스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 일이 됐습니다. 교육은 오래 받았지만 실질적 영적돌봄가 활동은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하는 요즘은 내내 행복하고, 보람찬 날의 연속입니다."

현재 울산대학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은 그동안은 자신이 없어 미루던 활동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더 빨리 시작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보호자들이 감사해 할 때는 그 마음이 느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호스피스 영적돌봄가 활동을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라고 설명한 스님은 활동을 하면 힘든 순간조차도 좋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힘들어도 매 순간 좋다는 화정 스님은 "이것저것 해보고, 이 일 저 일 벌어져도 결국 별거 없더라.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기 마련이다.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다. 요즘은 복잡했던 생각을 단순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스님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화정 스님은 "근래에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자, 오히려 호스피스 대상자들을 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같이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좋아할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걸까'와 같은 행동 · 마음 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한다. 스님은 항상 더 온전한 마음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가끔 노스님들을 뵈면,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 스님은 당사자면서 오롯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다들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화정 스님은 이제 삶의 목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한다. 이전 '굵고 짧게 살자'에서 '가늘고 길게 살자'로 바뀐 것이다.

오래오래 욕심 부리지 않고 병원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스님의 원력이다.

"호스피스 활동은 항상 어렵지만 또 항상 기쁩니다. 지금이 영적돌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 시절인연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호스피스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 주저하는 스님들이 있다면 일단 그냥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걸려 고민하죠. 계산하는 마음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한국불교, 독일서 세계서 통한다"

국제포교사회 獨쾰른서 2차 해외포교 진행

이화진 포교사 파견 지원
1차 뉘른베르크선 팀 구축
"향후 해외포교 유럽본부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차 해외포교 당시 독일 현지 명상팀과 이화진 포교사(사진 왼쪽 세번째).

국제포교사회가 해외포교에 다시 나섰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3월 14일 독일 쾰른에 제2차 해외포교 사업으로 이화진 포교사를 파견한다.

국제포교사회의 해외포교는 2017년 8월 이화진 포교사를 1차로 쾰른에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이 포교사는 6주간 독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2월 이 포교사는 귀국 후 국제포교사회 송년법회에서 성과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3월 6일 불교영어도서관에서 국내 독일 유학생을 대상으로 명상 강좌를 열었다.

국제포교사회는 그동안 이 포교사의 독일 활동이 관광비자로 종교활동을 했다는 우려에서 언론 비공개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독일대사관에서 관광비자로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확인에 해외포교 사업을 공개를 결정했다.

이화진 포교사는 3월 14일 출국 예정으로 이번 독일 2차 해외포교에서 1차 포교 당시 결성된 명상팀이 확보한 뉘른베르크 명상원을 비롯해 쾰른 일대에서 불교수행와 명상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화진 포교사는 "서구국가의 경우 기존 기독교에서 벗어나려는 탈종교화 현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영성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남아 있기에 명상에 열광하고 있다"며 "불교명상을 알려 자연스럽에 한국불교를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포교사는 이어 "지난해 4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러 도시에서 3주간 포교활동을 위한 시장 조사를 했다. 당시 명상 수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남유럽에 비해 독일의 경우 불교와 명상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영어 구사능력이 원활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불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할 만큼 불교 수요도 크다"고 소개했다.

이 포교사는 이어 "쾰른을 포교도시로 정한 이유는 보수적인 뮌헨 등에 비해 서북부 중심지이며 개방적 성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번 2차 해외포교에서 1차 당시 결성된 명상팀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포교의 유럽본부로 구축했으면 한다. 불교가 역수입되는 현실에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어린이 포교 시동… '아이 좋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새로 불교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가 새싹 포교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25일 '아이좋아 V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어린이, 청소년층 배가 운동에 나섰다.

아이좋아 V캠페인은 조계사 불교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오는 새로운 전법 운동이다.

지현 스님은 "2명이 4명, 4명이 8명 등 또래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불교학교로 나오는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이어 "더 많은 친구들이 불교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변에 전해달라"며 "어린이들이 처음 사찰에 와서 신심 있는 불자로 성장하기까지 20년이 걸린다. 조계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맑고 곱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현 스님은 새로 온 친구들에게 환영의 선물을 줬다. 이날 30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조계사를 찾았다.

이날 캠페인 선포식에서는 불교학교 재학생 대표로 홍윤혁 고학년 어린이 법회 학생이 송사를 낭독했다. 홍윤혁 학생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안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형, 누나, 동생들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축하공연은 김지용, 이소윤, 이현승 어린이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합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할아버지의 시계'를 연주했다. 이어서 조계사 소년소녀 합창단이 노래 '너와 나'와 '부처님을 사랑해'를 불렀다. 두 번째 곡 '부처님을 사랑해'를 부를 때는 불교학교 모든 법우들이 한목소리로 합창했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스님들의 서울 보금자리 탄생

비로자나국제선원, 나란다 수행관 공개



새로 개관한 나란다 수행관 입구.

포교, 학업 등을 위해 서울을 찾지만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관이 생겼다.

비로자나국제선원(원장 자우)은 2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구니 스님 전법교화를 위한 나란다 수행관의 건립을 알렸다.

서울 홍제동 선원 5분 거리에 위치한 나란다 수행관은 국제포교 관련 학업 혹은 관련 포교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개방된다. 그간 거처가 마땅치 않아 원룸이나 고시촌을 전전하던 스님들의 원력 성취 기반이 되겠다는 취지다.

수행관 1호 입주자인 템플스테이 홍보관 지도법사 능현 스님은 "지방에서 출가해 학업이나 포교 자체가 서울에서는 불가능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에 번번이 좌절했다. 그런데 이번에 거처가 생겨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스님 전용 기숙사는 동국대 학사과정이 유일하다. 하지만 석사 이상은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서울 다른 학교에선 지원하지 않는다. 자우 스님은 동국대서 석사 과정을 다니는 후배 스님이 여관을 전전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후배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마련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자우 스님은 "포교의 원력을 품고 서울로 와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학업과 포교의 원력을 성취하려면 숙소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한다. 나란다 수행관이 전법교화의 원력을 성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제1수행관의 방은 6개로, 개관과 동시에 4명의 스님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스님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다. 이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은 향후 더 많은 수행관 마련을 위해 불자들의 동참과 후원을 호소했다. 선원은 "수행관을 후원해 주는 일은 한국 불교의 전법활동을 더욱 힘차게 하며, 스님들의 전법원력을 꽃피우는 일"이라며 "불자로서 삼보를 수호하고 있음에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매일 수행관 스님들의 축원을 받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동참을 독려했다. (02)6012-1731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